컴퓨터교육학회논문지 2020년 제 23 권 제 2 호
https://doi.org/10.32431/kace.2020.23.2.008

북한이탈주민의 정보 활용 강화를 위한 교수학습 전략 연구

A Study on Teaching and Learning Strategies to Enhance Information Utilization of North Korean Defectors

이선희† · 변호승††
Sunhee Lee† · Hoseung Byun††

요 약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일반적인 현황 및 정보화실태를 분석하고, 정보화교육의 기본방향을 모색하고자 교육 참여자들의 학습 시 나타나는 특성과 요구를 분석하였다. 북한이탈주민들이 학습 시 나타내는 특성은 새로운 기기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한 느린 학습, 정보화용어와 외국어의 낯설음으로 인한 학습곤란, 본인이 닥친 상황이 아닌 경우 무관심으로 인한 정보유실 등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학습자특성 및 요구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북한이탈주민 정보화교육 활성화를 위해 단계적 반복에 의한 전략, 남북한 정보화 용어사전을 활용한 전략, 취업중심 및 소통을 위한 전략, 생활밀착형 교육을 위한 전략의 STEP모형을 제안하였다. 북한이탈주민들의 정보화 수준을 높이는 것은 성공적인 남한정착에 도움일 될 것이며, 이는 장차 이루어질 통일한국의 소중한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교수학습 전략, 북한이탈주민 교육, 정보 활용 강화

ABSTRACT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general informatization situation of North Korean defectors and to study the characteristics and needs of the learners in order to provide the directions of information education for them. The results of the study showed the following characteristics of the North Korean defectors: They are slow learners due to the fear of new devices, have difficulty in learning due to the unfamiliar language of information and English, and indifferent when the situation is not related to themselves. Based on these learner characteristics and needs, this study suggests the strategies of step-by-step repetition, use of North and South Korean dictionary of the information terminology, apply job-centered and communication abilities, and suggested a four-element STEP model. Raising the level of informatization of North Korean defectors will help establish a successful settlement to South Korea. This will be a valuable foundation and a stepping stone for the future unification of Korea.

Keywords: Teaching and Learning Strategies, North Korean Defectors, Enhance Information utilization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1세기는 정보가 지식이 되고, 부가 될 수 있는 정보화 사회이며, 경제, 생활, 교육, 문화의 전반에 걸친 부분에 IT의 역할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정보에서 소외된 계층이 경험하는 정보격차는 새로운 정보화 사회의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2016년 11월 우리나라는 북한이탈주민 3만명 시대를 맞이하였고, 2019년 12월 기준은 33,000여명에 이른다[1]. 관계당국과 전문가들은 중국 등 제 3국에 체류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이 계속 입국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앞으로는 남한 내 북한이탈주민들의 수는 의미 있는 집단으로 성장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재 남한에 정착한 북한이탈주민들은 정보격차, 정보 빈곤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들은 원만한 정착생활을 하는데 유해한 요소가 되고 있다[2][3]. 정보격차의 발생요인은 정보기기와 정보에 대한 접근 가능성, 정보자원 활용능력, 정보기기와 정보

† 정 회 원: 서원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
†† 정 회 원: 충북대학교 교육학과 교수(교신저자)

논문접수: 2019년 12월 30일, 심사완료: 2020년 03월 11일, 게재확정: 2020년 03월 18일

를 활용하려는 수용태도로 구분하여 발생한다고 보고 있다[4].

현재 입국한 북한이탈주민들이 안정적인 남한정착을 하지 못하고 이방인의 모습으로 있다면, 이는 향후 대규모의 탈북사태가 발생할 경우 북한이탈주민 정착 관련해서 혼란이 야기될 수도 있다. 취업이 더 나은 삶의 질과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것이라면 정보화 교육은 정보화 사회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교육이라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IT강국인 한국사회에 북한이탈주민들이 잘 적응하게 하는 것은 통일의 한 과정이며, 통일 이후에 실제적인 남북한 통합을 위한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들은 취업과 각종 생활정보서비스에 취약하다. 이러한 이유 중 하나는 취업, 교육훈련, 남한정착에 필요한 생활서비스 정보 등을 제대로 제공받고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북한이탈주민들은 같은 한민족으로 특별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나 사회주의체제의 생활양식과 의식구조, 북한이탈과정에서 겪었던 경험들로 인해 개인주의, 집단주의 등의 몇 가지 특징적인 태도와 가치를 지니게 되는데[5], 이러한 특성들은 학습 시에도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북한이탈주민들은 남한 정보화 교육에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음에도 이들의 학업특성에 대한 연구나 요구에 대한 분석은 부족한 실정이다.

이 연구의 주요 목적은 북한이탈주민들의 정보화 현황을 분석하고, 북한이탈주민학습자들과 정보화 교육담당자들의 설문, 면담을 통하여 북한이탈주민학습자 특성을 도출하고, 이를 반영한 정보화 교육을 위한 교수학습 전략을 제공하는데 있다. 북한이탈주민들의 정보 활용 능력을 높이는 것은 안정적인 남한정착에 도움일 될 것이며, 이들의 안정적인 정착은 장차 이루어질 통일한국의 소중한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 이론적 배경

2.1 북한이탈주민의 정의 및 입국현황

초기에는 북한이탈주민을 귀순자 또는 귀순용사라고 불렀으며 1990년대 이후 북한의 경제난과 식량난으로 인해 북한을 이탈하여 남한으로 들어오는 주민이 늘어나자 1997년 1월에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북한이탈주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1항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이라 함은 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자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6].

북한이탈주민의 입국현황을 살펴보면 1990년대 초반까지는 북한주민들의 국외이주는 매우 드물게 발생하였으나 북한의 식량난 악화와 사회주의권 붕괴와 함께 국경을 넘어 제3국에 체류하는 북한주민들이 급증하기 시작하였고, 2002년 이후에는 한해 1000명이 넘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입국하였으며 최근 2019년 6월 통일부 통계에 따르면 33,022명의 북한이탈주민들이 현재 입국해 있다[1]. 입국현황 특징으로는 가족단위의 북한이탈주민들과 여성 북한이탈주민 입국의 현저한 증가를 볼 수 있다. 이는 여성들이 남성보다 제3국인 중국 등에서 취업, 은신, 결혼 등이 용이하기 때문으로 보이며, 앞으로 계속 북한주민의 탈북과 한국으로의 입국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 예상한다.

2.2 북한이탈주민의 특성

북한이탈주민의 특성을 규정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나 사회주의체제에서의 성장, 탈북배경, 제3국 거주기간에 따라 공통적으로 발생하게 된 특성들이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성들은 남한에 정착하기 위해 긍정적인 요소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정착의 저해요소가 되기도 한다. 북한이탈주민들의 특성을 살펴보면 충동적이며, 자존심 손상에 대해 예민 반응, 경청의 어려움, 수동적 의존적 행동, 경직된 사고, 남한주민과의 공감능력 차이 등의 특성이 있다[7][8][9]. 한, 북한체제의 영향으로 민주와 독재, 혁명과 반혁명,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등 경직된 이분법적인 사고와 흑백 논리적 태도를 가지며, 불안, 실망, 우울함, 희망, 기대감 등이 함께 나타나는 정서적 불안정 상태를 보이며, 극도의 안전욕구를 갖는다[10]. 북한이탈주민들은 타인의 말을 잘 믿지 못하는 경향이 강하고, 성격이 급하고 자기주장이 강한 편이며, 가부장적인 남성중심의 사회영향으로 남성들의 권위가 강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11]. 북한이탈주민들은 강한 자아의식으로 자기중심적 인식과 태도를 가지고 있으며, 의사결정 과정을 중시하지 않는 경향이 있으며, 주장과 요구에 대해 즉시 답을 들으려 하는 경향이 강하여 “검토해 보겠다.”, “생각해 보겠다”등의 표현을 수용의 의미로 받아들이기도 하는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이해 부족측면 또한 보이고 있다[12].

이러한 특성들은 편향적이라는 비판의 소지고 있지만, 남한정착과정과 취업·훈련학습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13], 간과할 수 없는 요소로 볼 수 있어, 수업에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교수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2.3 정보화교육 및 정보능력

정보화란 사전에서 살펴보면 “정보를 생산·유통 또는 활용하여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그러한 활동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것”이라는 뜻이며, 정보화 교육은 “관찰이나 측정을 한 자료, 즉 현대에는 IT를 이용하여 수집한 자료들을 실제 문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활용하는 것을 교육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정보화 교육의 목적은 “지식정보화 사회의 시민양성을 위한 정보 활용 역량제고” 라고 할 수 있다. 직무능력에서 정보능력이란 업무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분석하여 의미 있는 정보를 찾아내며, 의미 있는 정보를 업무수행에 적절하도록 조직하고, 조직된 정보를 관리하며, 업무 수행에 이러한 정보를 활용하는 전반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하는 능력이라고 정의 되어 있다[14]. 다시 말하면 21세기의 지식정보화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보능력이 갖추어져야 하며, 특히 정보에 소외계층으로 살아왔던 북한이탈주민들에게는 더욱 정보 활용 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정보화교육이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 더욱 선행되어져야 할 것이다.

2.4 북한의 정보화

1998년에 북한은 “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 이라는 국가발전전략을 제시하고, 과학기술을 중시하는 정책을 강조하였으며 과학기술 중에서도 “북한식 정보화”가 경제발전의 주요방법으로 제시하였다. 2000년대에 들어 북한은 더욱 정보화를 강조하며 정보화 담당 전문기관들을 설립하였고, 대학과 영재교육기관을 통해 IT인력양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북한의 IT교육은 1998년부터 고등중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주2회 컴퓨터 교육을 실시하였으나, 이론적 교육에 치우쳐 있었고 현실적인 IT교육은 진행되지 못했음을 북한이탈주민들의 증언에서 보고되고 있다[15].

2.5 북한이탈주민들의 정보화 현황

북한이탈주민 거주 가구의 컴퓨터 보유율은 65.1%, 인터넷 이용률은 77.3%로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컴퓨터 보유율인 80.3%보다 15%, 전체국민의 인터넷 이용률인 91.5% 보다 14%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16]. 이는 또 다른 신 소외계층인 결혼이민자(컴퓨터 보유율 80.0%, 인터넷 이용률 79.6%)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아울러 조용완[17]은 북한이탈주민들은 정보환경에 열악한 상태에 있고,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찾아 삶의 문제해결에 활용하는데 곤란을 겪고 있다고 분석하고 이 문제 해결 방안 중의 하나로 북한이탈주민의 결핍된 정보마인드를 개발하고, 정보 활용 능력을 배양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들의 정보능력, 즉 컴퓨터사용능력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평가하며, 북한이탈주민들의 성공적인 남한정착을 위해서는 직업기초능력을 우선 갖추고 공통직업능력과 필수직업능력을 길러나가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18]. 지식정보 활용능력이 낮은 경우는 정보시스템의 접근에 두려움을 갖게 되면서 정보격차가 야기되고, 지식정보 활용능력강화를 위해 적극적인 정보교육이 이루어 져야한다는 지적도 있다[19].

정보화 교육을 수강한 북한이탈주민은 비수강자에 비해 컴퓨터 활용능력과 인터넷 활용능력이 높게 나타나며, 이것은 취업에도 영향을 주어 정보화교육을 이수한 북한이탈주민들의 취업률이 비수강자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난다[20]. 현재 북한이탈주민의 입국 초기 정보화 교육은 통일부 산하 북한이탈주민 사무소에서 진행하고 있다. 정보화 교재로는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제작된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정보화‘ 교재로 진행하고 있으며, 이 교재는 정보화 사회의 이해, 정보화 기초교육, 정보의 활용에 대하여 수록되어 있다. 위의 연구에서 본 바와 같이 북한이탈주민의 정보화에 대한 논의는 계속하여 제기되어 왔다. 북한이탈주민의 정보 활용 능력은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지속적인 정보화 교육의 영향으로 이전보다 향상된 능력을 보이고는 있으나, 아직까지는 국민정보화능력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지속적으로 정보화 교육에 대한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 북한이탈주민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입국초기에 남한 실생활정착에 필요한 정보화 교육 및 북한이탈주민 특성을 고려한 교수학습 전략이 필요한 실정이다.

3. 연구 방법

3.1 연구절차

본 연구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선행연구고찰과 각종 문헌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특성과 일반적인 현황 및 정보화실태를 분석하였다. 둘째, 입국초기 정보화교육에 참여한 북한이탈주민들과 교육담당자들 설문 및 면담을 통해 현 정보화교육의 실태와 요구를 분석하였다. 셋째, 연구결과를 토대로 남한의 안정적인 정착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보 활용 강화를 위한 교수학습 전략을 제시하였다.

표 1. 요구조사지 구성표

구분	영역	내용	문항
학습자	학습자 일반현황	나이/성별/학력	3
	컴퓨터 및 인터넷 이용현황	컴퓨터 경험 유무 컴퓨터 사용 능력 컴퓨터/인터넷 이용 현황	3
	정보화 교육 경험	정보화 교육 유무 교육 종류	4
	정보화 교재 및 교육의 만족도 교육담당자의 언어 이해 정보화 교육 활용 분야	교육담당자의 언어 이해 정보화 용어 이해 교재 내용 이해 교육 시 요구사항	11
	정보화 교육을 통한 변화	정보화교육을 통한 의식 변화	17
교육 담당자	교육자 일반현황	성별/나이 학력/교육경력	5
	학습자 교육 만족도 및 교재 만족도	정보화 교육의 효과성 교재 활용도 교재의 효과성	7
	정보화 프로그램 개선사항	정보화 교육 목표 정보화 교육 개선사항 정보화 교육 요구사항 교재 이외의 활용 프로그램 및 자료	7

3.2 연구대상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남한 입국초기 정보화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여성 105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고, 불성실하게 답변한 3명의 응답지를 제외한 102명의 응답지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정보화교육담당자 3명과 북한이탈주민 학습자 6명을 대상으로 정보화교육의 실태와 요구에 대한 면담을 실시하였다. 북한이탈주민 학습자 면담대상자 선정은 교육담당자에게 추천받았다. 면담은 정보화교육이후 진행하였고, 요구조사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4. 연구 결과

4.1 학습자 설문

4.1.1 학습자의 일반현황

응답자의 20대가 전체응답자의 47.0%를 차지했고, 최종학력이 고등중학교 고등반 졸업의 응답자가 65명으로 전체응답자의 63.7%를 차지했다.

표 2. 학습자 일반현황

구분		빈도수(명)	백분율(%)
연령	20대	48	47.0
	30대	39	38.2
	40대	13	12.7
	50대	2	1.9
최종 학력	인민학교졸업	3	2.9
	고등중학교 중등반 졸업	26	25.4
	고등중학교 고등반 졸업	65	63.7
	대학교 졸업	8	7.8

4.1.2 남한에 오기 전의 컴퓨터 사용 유무 및 사용 능력

남한에 오기 전에 컴퓨터를 사용해본 경험은 전혀 없는 경우가 66%이고, 가끔 사용해본 경우는 20% 여러 번 사용해 본 경우는 12%정도로 나타났으며, 컴퓨터를 사용해 본 경우의 연령층은 20-30대가 주로 많았다.

표 3. 컴퓨터 사용 유무 및 사용 능력

질문		빈도수	백분율(%)
컴퓨터 사용 유무	전혀 없었음	68	66.7
	가끔 사용해 보았음	21	20.6
	여러번 사용해 보았음	13	12.7
계		102	100
컴퓨터 사용 능력	전혀 사용할 줄 몰랐음	68	66.7
	문서작성 가능	15	14.7
	필요한 인터넷사이트 접속	10	9.8
	필요한 정보 검색	4	3.9
	이메일 전송	5	4.9
계		102	100

4.1.3 북한에서의 정보화 교육경험

북한에서의 정보화교육경험은 받은 적이 없는 경우가 81.3%로 대다수였고 교육을 받은 경우에도 이론적인 운영체제와 문서작성(타자연습) 교육에 치우친 것으로 나타났으며, 프로그래밍과 인터넷관련 교육경험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북한의 정보화 교육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

표 4. 정보화 교육 경험

질문		빈도수	백분율(%)
정보화교육경험	교육받은 적 없다	83	81.3
	교육받은 적 있다	19	18.6
계		102	100
(교육 유경험자만) 북한에서 받은 정보화 교육	타자연습, 문서작성	18	94.7
	인터넷	-	-
	운영체제	1	5.2
	스프레드시트	-	-
	프로그래밍	-	-
계		19	100

4.1.4 남한 정착을 위한 정보화교육의 필요성 및 향후 교육 참여 의향

정보화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필요하다'는 응답자들(96%)이 대부분이었으며, 이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정보화교육이 남한정착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또한 향후 정보화 교육 참여의사도 '반드시 참여 하겠다'의 응답(76.4%)이 매우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표 5. 정보화 교육의 필요성 및 향후 교육 참여 의향

질문		빈도수	백분율(%)
정보화 교육필요성	매우필요하다	75	73.5
	조금필요하다	23	22.5
	보통이다	4	3.9
	별로 필요하지 않다	-	-
	전혀 필요하지 않다	-	-
계		102	100
향후 정보화 교육 참여 의향	반드시 참여 하겠다	78	76.4
	참여 할 의향이 있다	15	14.7
	잘 모르겠다	6	5.8
	참여할 의향이 별로 없다	3	2.9
	전혀 참여하지 않겠다	-	-
계		102	100

4.1.5 정보화교재의 만족도

정보화교재에 대한 만족도에 대한 설문에서는 정보화교재는 '어렵다'의 비율이 77.4%였다. 어렵다고 응답한 학습자는 어려운 원인이 영어가 너무 많고(49.3%) 정보화용어들이 생소하며(39.2%),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11.3%)이라고 응답하였다.

표 6. 정보화 교재의 만족도

질문		빈도수	백분율(%)
정보화교재의 만족도	매우 어렵다	18	17.6
	조금 어렵다	61	59.8
	보통이다	6	5.8
	별로 어렵지 않다	12	11.7
	전혀 어렵지 않다	5	4.9
계		102	100
(어렵다고 응답한 교육생만) 정보화교재가 어려운 이유	정보화 용어 생소	31	39.2
	영어가 너무 많음	39	49.3
	내용이 너무 많음	9	11.3
	난이도가 높음	-	-
	기타의견	-	-
계		79	100

4.1.6 남한 정착 시 어렵게 여겨지는 문제

남한 정착 시 가장 어렵다고 여겨지는 문제로 취업(44.1%)을 들었고 그 뒤로 이웃과의 의사소통(27.4%)과 도로·교통이용(16.6%), 낯선 곳에서의 두려움(11.7%)이었다.

표 7. 남한 정착 시 어렵게 여겨지는 문제

질문		빈도수	백분율(%)
남한 정착 시 어렵다고 여겨지는 문제	취업	45	44.1
	도로·교통이용	17	16.6
	이웃과의 의사소통	28	27.4
	낯선 곳에서의 두려움	12	11.7
	기타의견	-	-
계		102	100

4.1.7 정보화 교육 시 북한이탈주민들의 교육담당자의 언어 이해도

정보화 교육 시 북한이탈주민들의 교육담당자의 언어 이해는 '대체로 이해한다' 이상의 긍정적인 대답이 79.4%로 대다수였으며 '이해할 수 없다'의 부정적인 대답은 9.7%에 불과하였다. 대체로 다수의 북한이탈주민들이 교육담당자의 사용하는 언어가 남한 언어이지만 수업 내용을 대체적으로 잘 이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교육담당자의 언어 이해도

질문		빈도수	백분율(%)
교육 담당자의 언어 이해도	모두 다 이해한다	15	14.7
	대체로 이해한다	66	64.7
	조금 이해한다	11	10.7
	대체로 이해할 수 없다	7	6.8
	전혀 이해 할 수 없다	3	2.9
계		102	100

4.1.8 정보화 교육 이후 변화

정보화 교육 이후의 변화를 살펴보면 '컴퓨터를 다루는 것에 자신감이 생겼다'의 질문에 긍정적인 답변(89%)이 높은 것으로 보아 정보화 교육 후에 컴퓨터에 대한 두려움은 사라진 것으로 보이며, 인터넷을 이용하여 교통검색을 하고, 취업, 직업훈련에 관련된 정보를 찾을 수는

표 9. 정보화 교육 이후 변화

구분	문 항	응답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그렇지 않다
정보화교육후 변화	정보기기 활용 능력(정보기기 두려움 감소)	33(32.3)	59(57.8)	5(4.9)	4(3.9)	1(0.9)
	지역정보 활용 능력(남한지역 낯설음 감소)	22(21.5)	47(46.0)	23(22.5)	8(7.8)	2(1.9)
	직업정보 활용 능력(구직 자신감)	21(20.5)	58(56.8)	17(16.6)	4(3.9)	2(1.9)
	남한정착 두려움 감소	15(14.7)	32(31.3)	37(36.2)	16(15.6)	2(1.9)

있는 능력도 70%이상 '그렇다'라는 답변을 하고 있어 정보화교육이 취업과 직업훈련 정보인지에도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보화교육이후 남한정착에 대한 두려움도 다소 사라졌다는 응답자가 45%로 정보화교육이 정착에 대한 안정감을 주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4.2 학습자 면담

학습자들의 정보화교육시의 어려운 점과 바라는 점을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북한이탈주민들과 일대일 면담을 실시하였다. 면담은 정보화교육을 마친 105명중에 교육담당자들이 추천한 북한이탈주민 6명과 면담을 실시하였다.

표 10. 교육자 일반적인 현황

연번	이름 (가명)	연령	성별	학력	남한에 오기 전에 컴퓨터 사용 경험
1	가	22	여	고등중학교 고등반 졸업	제3국에서 사용해 보았음
2	나	25	여	고등중학교 고등반 졸업	전혀 없음
3	다	36	여	고등중학교 중등반 졸업	전혀 없음
4	라	40	여	고등중학교 고등반 졸업	전혀 없음
5	마	42	여	고등중학교 고등반 졸업	제3국에서 사용해 보았음
6	바	44	여	고등중학교 고등반 졸업	제3국에서 사용해 보았음

표 11. 면담 질문

영역	질문
남북한 정보화비교	• 남북한 정보교육을 비교해본다면 어떠한가요? • 북한에서 컴퓨터를 사용해보거나, 교육을 받아본 경험이 있습니까?
정보화교육의 어려움	• 정보화교육 시 가장 어려운 부분은 무엇입니까?
정보화교육의 효과	• 정보화 교육 시 바라는 점은 무엇인가? • 정보화 교육을 통해 가장 얻고 싶은 점은 무엇인가?

면담자들은 북한에서는 정보화 실습교육은 받은 적이 없었으며, 정보교육은 이론에 치우친 교육들로 실습환경이 마련된 교실에서 정보화 교육을 받은 학습자들은 거의 없었다.

가 교육생: 컴퓨터 교육이라고 교과과정에는 있지만, 이론으로 거의 수업합니다. 학교에 컴퓨터가 딱 두 대정도만 있고 컴퓨터도 오래된 구형이에요. 구경하거나 만져보기는 거의 힘들어요. 타자연습도 나무판때기 가지고 치는 흉내를 내면서 연습하는 걸요. 직접 컴퓨터를 만져본 것은 탈북이후 중국에서 체류하면서 가끔 만져보았어요.

나 교육생 : 다른 지역 몇몇 동무들은 이론수업이 있었다고 하는데, 제가 다닌 학교에서는 컴퓨터도 전혀 보지 못했고 교육도 전혀 받지 못했어요. 지역마다 교육이 달랐던 것 같아요.

마 교육생 : 북한에 있을 때는 컴퓨터를 본적도 없고, 이론수업도 들은 적이 없었어요. 중국에서 일할 때 컴퓨터를 처음 접했고, 인터넷도 사용해 보았었지만 교육을 받은 적은 없었습니다.

학습자들의 면담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도출하였다. 첫째, 학습의 도입부분에 정보화 용어와 컴퓨터 기능키에 대한 용어 정리 및 설명이 필요하다. 대부분 영어교육을 받지 못한 북한이탈주민들은 정보화용어와 컴퓨터 기능키에 영어가 많이 섞여 있어 어려움을 토로하였고, 이러한 사항들은 정보화교육의 장애요인들이 되었다.

다 교육생 : 영어교육을 받은 적이 없었는데, 남한에서는 영어를 많이 쓰는 것 같아서 두려운 면이 있었습니다. 실습하는 수업을 해 본적도 없어서 실습하면서, 선생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을 병행하기가 매우 어렵네요. 거기에다 영어로 된 용어들까지 사용되어서 곤란할 때가 많습니다.

둘째, 컴퓨터 관리, 대처 방법 등을 교육의 초기에 학습해야 한다. 컴퓨터 수업 중에 컴퓨터에 멈춤과 다운 현상 등이 발생되면 당황하게 되며, 특히 따라하기 실습시간에는 진도를 좇아가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되므로 컴퓨터관리의 교육은 교육초기에 알려주기를 원하였다.

나 교육생 : 갑자기 컴퓨터에 멈추거나, 이상이 생길 때에는 어찌해야할지 모르겠어요. 일단 선생님을 불러보는데... 수업 초반에 컴퓨터관리 부분이나 컴퓨터 고장시의 대처 사항 등을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셋째, 실습 시 짧은 주제의 단계별 학습으로 진행하고, 단계마다 확인을 거치고 반복 연습하여 충분한 학습이 이루어져야 한다.

라 교육생 : 실습할 내용을 간단하게 주시고 반복적으로 연습할 시간이 충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나서 다시 하려해도 생각이 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넷째, 인터넷을 활용하여 취업정보 및 직업훈련정보, 실생활 관련한 정보를 활용하는 방법과 SNS, 블로그, 카페등을 통한 소통방법의 교육이 필요하다.

라 교육생 : 인터넷에 개인블로그, 카페에 가입해서 온라인으로 소통하고 싶고, 궁금한 것도 물어보고 싶습니다.

마 교육생 : 실제적인 생활에서 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바 교육생: 생활하면서 인터넷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모의상황을 만들어서 설명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3 교육담당자 면담

교육담당자들은 40대 초중반의 여성 교육담당자들이었고, 교육경력은 모두 10년 이상 되는 전문 정보화교육 강사들이었다.

표 12. 교육자 일반 현황

교육담당	연령	성별	학력	교육경력	교육생수
A교육자	45	여	학사	직장인교육경력10년 북한이탈주민 교육 7년	34
B교육자	42	여	석사	직장인교육/대학생교육 8년 북한이탈주민 교육 7년	36
C교육자	42	여	학사	직장인교육/대학생교육 3년 북한이탈주민 교육 10년	35

북한이탈주민 정보화교육 담당 교육담당자 3명과 정보화교육시의 어려운 부분에 대해 일대일 면담을 진행하였다.

표 13. 교육담당자 질문

영역	질문
학습 시 나타나는 북한이탈주민 특성	학습시 보이는 북한이탈주민들의 특성이 있었는가?
정보화 교육시 어려운 점	교육시 어떤 어려운 점이 있었는가? 북한이탈주민들의 학습시 태세는 어떠한가?
정보화교육의 효과	정보화교육이 북한이탈주민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가?
정보화 교육 시 필요한 추가과정	북한이탈주민 정보화교과과정에 추가되었으면 하는 내용이 있는가?

교육담당자의 설문과 면담에서 다음과 같은 북한이탈주민 학습자들의 특성을 도출할 수 있었다. 정보화 교육과정에서 북한이탈주민들은 다음과 같은 특성들을 보였다.

첫째, 새로운 기기에 대한 두려움으로 학습반응이 느리다. 이전에 컴퓨터를 한 번도 접해보지 못한 학습자들이 과반수가 넘는다. 중국을 통하지 않고, 바로 북에서 온 학습자들은 특히 새로운 컴퓨터라는 도구를 접해보는 학습자들이었다. 그러므로 새로운 기기에 대한 두려움과 어색함으로 학습행동들이 천천히 이루지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또한 인터넷 검색 시에는 북한정권에 대한 확인을 하고 싶어 하는 모습들이 보였다.

둘째, 북한이탈주민에게 정보화 용어가 생소함으로 용어를 설명하고 이해시키는데 시간이 걸린다. 정보화용어들은 대부분 영어로 된 용어들이 많고, 신조어 및 합성된 용어들도 있어 북한이탈주민들이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

셋째, 학습내용을 빨리 습득하고 싶어 하여, 시범 실습을 끝까지 보지 않고 시범 도중 실습에 먼저 임하거나, 본인이 닥친 상황이 아닌 유의할 사항을 설명해주는 내용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으므로 유실되는 정보들이 종종 있다.

넷째, 궁금한 질문의 답변을 즉시 듣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기다리기 어려워하는 모습이 보이며, 즉문즉답을 원하는 경우가 많다.

5. 북한이탈주민 정보활용강화를 위한 교수학습 전략

북한이탈주민들의 정보화교육 수강이후 학습자 설문 및 면담과 정보화교육담당자들의 면담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북한이탈주민들의 학습자 특성을 반영한 교수전략의 필요성이 제기되며 둘째, 입국초기 정보화교과과정이 실제 정착생활과 관련된 내용으로 수정·보완 필요성이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입국초기 정보화 교육의 목적은 “남한 국민들과의 정보격차를 줄이고, 정보활용능력을 이용하여 남한생활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한 것”으로 정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북한탈주민들의

60%가 넘는 비율이 정보기기와 정보에 대한 접근 조차도 어려운 상황가운데서 정보가 고도화된 남한 사회로 넘어 왔다. 남한주민들과의 정보격차를 줄이고 고도화된 정보화 시대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효과적인 정보화 교육이 매우 중요할 것이다. 셋째, 새로운 기기를 사용한 매체를 이용한 학습 시 학습 반응이 느리므로, 단계 점검과 반복학습이 필요하고, 문제 상황 기반의 학습을 준비하여 스스로 해결해보며 학습 성공 경험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위에서 도출된 내용을 기반으로 다음과 같이 북한이탈주민 정보 활용 강화를 위한 STEP모형의 4가지의 교수학습 전략을 제안한다.

5.1 단계별 반복에 의한 교수학습 전략 (Step by step and repeti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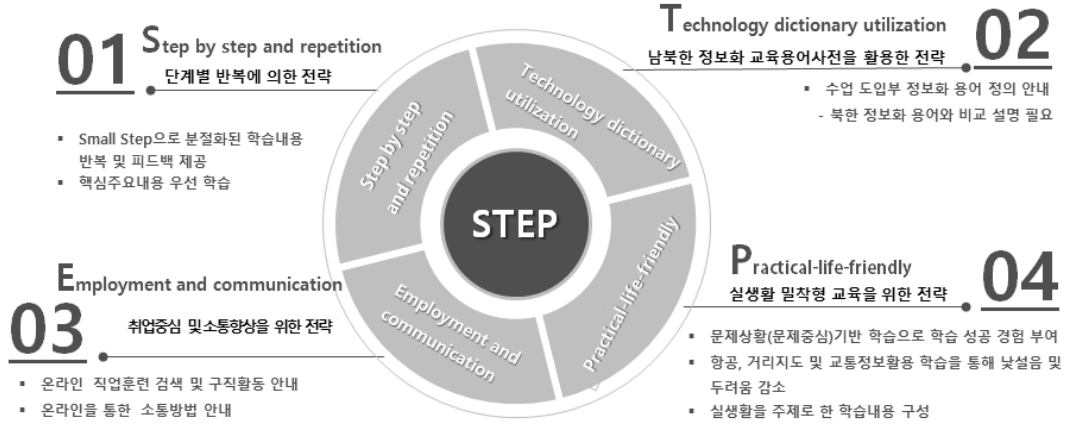
북한이탈주민들은 남한에 오기 전에 컴퓨터를 전혀 접해 본적이 없는 사람들의 빈도가 60%가 넘는 비율을 보이고 있고, 북한에서의 정보화교육 경험이 없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체계적으로 한 단계씩 과정을 천천히 진행해야 할 필요성이 요구되며, 한 번에 많은 정보들을 쏟아주는 것 보다는 작은 단계(small-step)의 내용이 완전히 마무리 될 때까지 반복적인 학습과 피드백을 주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집중이 어려운 학습자를 위해 일반적으로 처음에 학습한 내용이 기억이 잘 된다는 우선성의 원리[21]를 적용하여 수업의 도입에 중요한 사항을 포함하고, 집중을 유도할 수 있는 흥미롭고 관심 있어 할 만한 실생활의 주제로 수업내용을 구성하는 것이 요구된다.

5.2 남북한 정보화 교육 용어사전을 활용한 교수학습전략(Technology dictionary utilization)

교육담당자는 수업 시에 사용되는 정보화 용어들과 컴퓨터의 기능에 관련된 용어들은 사전화하여 북한이탈주민들에게 보급되는 것이 필요하다. 교육담당자는 매 수업시간에 관련 정보화용어들을 정리하여 수업 도입부분에 설명해 주고, 수업에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며, 정보문화진흥원에서 제작한 "남북한 공통 정보화교육 용어사전"을 활용하여 북한용어들과 비교하여 설명하여 준다면 더욱 도움이 될 것이다.

5.3 취업중심 및 소통향상을 위한 교수학습 전략 (Employment and communication)

설문분석에서 보면 남한 정착 시에 가장 어렵게 여겨지는 점으로 취업문제(44.1%)와, 이웃과의 의사소통(27.5%)문제를 호소하고 있다. 첫째, 취업문제는 온라인 직업훈련정보 및 구직사이트사용방법을 학습함으로서 진로 및 취업정보 활용 강화를 시킬 수 있다. 정보화교육 시에 직업훈련교육 사이트를 소개하고 직접 본인에게 맞는 진로 및 직업훈련을 찾을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하며, 온라인 구직사이트인 워크넷, 잡코리아 등을 소개하여 회원가입과 함께 온라인 이력서 작성과 온라인 구직활동 방법을 교육해야한다. 또한 북한이탈주민들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남북하나재단 사이트를 소개하여 다양하게 제공되는 정책들을 찾아보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도움을 주어야 한다. 둘째, 의사소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으로 인터넷윤리안내와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카페,



[**그림 1**] 북한이탈주민 정보 활용 강화를 위한 교수학습 전략 - STEP모형

블로그, SNS, 메일, 웹 글쓰기, 지식인에 묻기 등이라 할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에 연고지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북한이탈주민들끼리만 의사소통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남한사람들에게 편견과 차별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외로움과 고향에 대한 그리움으로 어려워하는 경우도 있다. 온라인상 궁금한 부분을 묻고 답하는 것,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글쓰기, 다른 사람의 글에 답글을 다는 것 등을 하는 것은 북한이탈주민들과 남한사람들과의 서로의 소통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5.4 실생활 밀착형 교육을 위한 교수학습 전략 (Practical-life-friendly)

설문결과에 정보화교육 이후에 자신에게 맞는 직업훈련교육을 찾을 수 있고 직업을 찾는 것에 자신감이 생겼다는 결과를 볼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남한정착에 대한 두려움을 조금이나마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실생활 밀착형 교육을 위한 제안으로는 문제 상황 기반의 학습을 준비하여 학습 성공과 함께 정착의 자신감을 주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학습영역으로는 기본생활, 경제생활, 사회생활, 여가문화생활을 위한 교육과정들이 실제생활의 문제 상황에 기반 하여 제공되어야 하고, 그 중에 다음과 같은 교육들을 포함하여야 한다. 인터넷 교육에서는 첫째, 현재 성공적인 정착경험담과 서로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쉼터"등과 같은 커뮤니티, 또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직접 경험담을 소개하는 방송들을 안내하고 선배 정착자들을 통하여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며, 둘째, 남한의 지도정보와 교통검색(버스, 기차, 항공편예약)에 관련된 수업을 진행하여 남한지역의 항공뷰와 거리뷰를 통하여 남한에 대한 낯설음과 두려움을 감소시키고, 셋째, 문서작성 시 이력서, 자기소개서, 공문서, 일정계획표, 가계부등 실제 생활에 필요하고 활용 가능한 문서들을 작성하여 봄으로 정보화교육이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6. 결론 및 제언

IT강국인 남한의 정보화 사회에 있어서 정보화 교육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정보화 사회의 북한이탈주민들에게 정보화 교육은 주체적인 사회참여로의 계기가 되며, 남한에 안정적인 정착을 하는데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최근 우리나라에 급격히 유입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에게 적합한 교수학습 전략을 제안하고자 입국초기 정보화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들과 정보화교육담당자를 대상으로 요구사항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를 통하여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정보화교육의 교수학습 전략으로 위에서 STEP모형을 제시하였다.

앞으로 통일한국 준비를 위하여 입국한 북한이탈주민들이 새로운 환경에 빠르게 적응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일 것이다. 또한, 이들의 정착을 돕기 위해서는 북한이탈주민 특성(학습자분석)을 반영하여 다양한 분야의 교육을 위해 교수학습 자료들이 개발되어져야 할 것이다.

향후 연구 과제로는 북한이탈주민 학습자 특성을 반영하여 실제 문제 상황에 기반 한 정보화 교육과정 개발이 요구된다.

참고문헌

[1] 통일부 (2019). **2019 통일백서.** 205-206.

[2] 윤상오 (2007). 남북한 정보격차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10**(4), 135-164

[3] 강진규 (2018). **북한 이탈주민 정보격차 실태와 변화.** NK경제.

[4] 유석진 (2004). **남북간 정보격차 대응방안 연구.** 한국정보문화진흥원.

[5] 김은주 · 김종호 (2007). 국내입국 북한이탈주민의 심리적 특성연구. **한국교류분석협회지**, **4**(2), 33-56

[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223호).**

[7] 이상만 (2000). **하나원 사회적응 교육 프로그램 평가 및 개선방안**. 중앙대학교 민족통일연구소 정책보고서.

[8] 김정규 (2009). **북한이탈주민들의 정서안정 및 초기적응력 향상을 위한 집단 상담 프로그램 개발.** 통일부 정책연구 결과보고서.

[9] 이형종 (2018). **북한이탈주민의 공감 능력과 경험연구**. 박사학위 논문. 북한대학원대학교.

[10] 윤여상 (2002). 북한이탈주민 지원 인적자원 교육 프로그램 개발. **한국동북아학회지**, **23**, 129-154.

[11] 김선화 (2004). **북한이탈주민들의 남한사회 적응의 어려움과 통일교육의 방향**. 석사학위 논문. 서울시립대학교.

[12] 구현정 · 권재일 · 전정미 · 양수경 (2016). **남북한 의사소통방식 차이 극복방안 연구. 통일준비 위원회 보고서.** 193-252.

[13] 조석주 · 박종관 · 김은주 (2011). **북한이탈주민 지역정착을 위한 사회통합 지원정책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보고서.

[14] 한국산업인력공단 (2015). **국가직무능력표준(NCS) 분류**.

[15] 남성욱 (2002). **북한의 IT산업발전전략과 강성대국 건설**. 서울: 한울아카데미.

[16] 한국정보화진흥원 (2018).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 보고서**.

[17] 조용완 (2006). 북한이탈주민의 정보빈곤 해소를 위한 정보서비스 방안.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7**(3), 325-356
[18] 이찬·이용환·이윤조·신재호·홍윤선·최홍주 (2007). 새터민의 기초직업능력 진단.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39**(3), 213-238.
[19] 한세억·박문우 (2007). 지식정보시대의 남북간 정보화 현황 및 정보격차 해소방안. **한국행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1121-1137.
[20] 이기식·서문기·문미경·박영식 (2008). **국민정보화교육의 효과 및 성과 분석.**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연구보고서.
[21] 권두승·조아미 (2016). **성인학습 및 상담**. 서울: 교육과학사.

이 선 희

2002년 한남대학교 컴퓨터교육 (교육학석사)
2011년 충북대학교 교육학과 (교육공학박사수료)
2016년~현재 서원대학교 교육혁신원 교수학습개발센터 조교수

관심분야: 이러닝, 교수설계, 이러닝 플랫폼, 교수매체, 게임화 수업설계
E-Mail: chopin117@seowon.ac.kr

변 호 승

1989년 고려대학교 교육학과(교육학학사)
1991년 고려대학교 교육학과 대학원(문학석사)
2000년 Indiana University Instructional Systems Technology(교육공학 박사)

2001년~현재 충북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관심분야: 교수방법, 디지털교과서, 이러닝, ICT 활용교육
E-Mail: hobyun@chungbuk.ac.kr